**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를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20)**

이 책의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한 문장이 책의 마지막에 나왔다.

예수와 함께한 저녁식사.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예수님과의 시간을 바랬던 사람으로서 궁금함을 감출 수 없는 제목이다. 다들 예수님과 티타임을 가지게 된다면? 이라는 질문에 한번쯤은 나눔 질문으로 이야기해본 적 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도 벌써 머릿속에 이 나눔을 한 장소가 여럿 떠오르기도 한다. 내 인생의 성공 그래프를 물어보고 싶다고 답했고 또 언젠가는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 나라는 죄인을 향한 관심과 사랑은 수지타산에 맞지 않은 사랑이 아니었는지 물어보고 싶었다고 대답했다. 이 책을 여러 번 나눠서 읽었다. 다시 이어서 읽기 시작할 때면 내가 만약 예수님과 저녁식사를 함께하는 순간이 온다면 나는 내 앞에 앉아있는 상대를 의심하지 않고 그가 예수님이라고 온전히 믿을 수 있는가? 매번 똑같은 질문이 들었다. 책 속 ‘닉’처럼 연기를 잘 하는 배우라고 생각할지도. 혹은 예수님이라고 믿으면서 믿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닉’처럼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라는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지 않을 확신이 없었다. 그래서인지 ‘닉’과 예수님이 나누는 대화는 나와 예수님이 나누는 대화처럼 내게 다가왔다. ‘닉’에게 한 말씀은 곧 내게 한 말씀이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게 무엇이냐 물어보는 ‘닉’의 질문에 하신 대한 답은 신앙적 권태기를 맞이한 나에게도 대답이 되었다. 복음학교를 시작하면서 내 입을 통해 할 수 있는 말이 너무 없는 모습을 바꿔보고 싶었고 준비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신청했다고 이야기한 적 있다. 사실 한가지 이유가 더 있었다. 방금 말한 신앙적 권태를 느꼈기 때문이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변하지 않는 내 모습과 상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딱 좋았고 그 비교는 더 큰 괴리감을 느끼게만 했다. 모르겠음 모르겠다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에서 다시 나의 적당한 페이스를 찾고 싶었다. 책을 읽을수록 하나님의 진심에 대해 무지한게 많았고 알려달라고 간구한 적도 별로 없었던 본인을 발견해서 마음 한 켠이 무거워지기도 했다.

갑자기 결론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적당하지 않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순수한 영혼의 아이들과 나눔은 ‘함께’의 위로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고 ‘닉’과 예수님의 대화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하나님 자녀 박민지에게 잠시 길잡이가 되어주었다.

오늘이 지나고 또 언젠가 지금처럼 다시 넘어지고 마음이 어렵고 공동체에 지쳐 하겠지만 위로가 되어준 시간을 지난 기억하고 사람을 기억하며 다시 이 곳으로 발걸음을 이어나가길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게 계획해 주셨으면, 주님의 계획에 나를 충분히 사용하여 주시기를, 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흘려 보낼 수 있기를. 내 곁에 그리고 마음속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마음으로 기도를 하며 독후감을 마친다